1주차

문학의 기능과 효용

텍스트, 폰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문학적 상상력과 치유

감상적인 감정이 무자비함이나 그보다 더 나쁜 것을 즐기는 취향과 완벽히 양립할 수도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대표적인 예로서, 저녁에 퇴근해 아내와 자식들을 다정하게 껴안아 준 뒤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했다는 아우슈비츠 사령관의 사례를 상기해보라).

문학적 상상력과 치유

문학적 상상력은 나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 맺는 데 필요한태도를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텍스트, 스크린샷,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시 다시 쓰기

“걸어가느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위를 날아가느냐에 따라 시골 길이 발휘하는 힘은 전혀 달라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그것을 읽느냐 아니면 베껴 쓰느냐에 따라 발휘하는 힘이 전혀 다르다.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은 오직 길들이 풍경 속을뚫고 나가는 모습만을 볼 뿐으로 그의 눈에 길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세와 동일한 법칙에 따라 펼쳐진다. 길을 걸어가는사람만이 길의 지배력을 알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저 쭉 펼쳐져 있는 광야에 불과한 지형들로부터 마치 병사들을 전선에 배치하는 지휘관의 호령처럼 원경들, 전망대, 숲 속의 공터, 굽이굽이 길목마다 펼쳐진 멋진 조망을 불러낼 수있다.”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메뉴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다른 사람의 말 진정으로 들어 주기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기 무조건적 칭찬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정확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2주차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프로이트 : 의식과 무의식

Ø 무의식 -> 의식 (의식화) : 자기방어, 승화

§ 앵무새 키우는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떠올린 기억들

- 앵무새와의 산책 : 킥킥되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 유년 기억이 떠오름

- 유쾌하지 않은 상처가 된 기억, 좋았던 기억

- “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잊었을까?”

- 딸에 대한 기억: 미안함과 자책 (앵무새에 대한 애정과 관심)

상실의 기억

“앵무새가 ‍갔다.‍그녀는 ‍일상을 ‍되찾았다.‍월요일엔 ‍동네 ‍슈퍼에서 ‍채소를 ‍샀고,‍수요일엔 ‍평생교육원에

‍갔다.‍저녁을 ‍먹과 ‍설거지를 ‍한 ‍후에 ‍결명자차를 ‍끓이며 ‍텔레비전을 ‍보았고 ‍다 ‍본 ‍후에는 ‍가스 ‍불을 ‍끄고

‍잤다.‍모든 ‍게 ‍변함 ‍없었지만 ‍그녀는 ‍천변에 ‍한동안 ‍나가지 ‍못했다.‍천변의 ‍모든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백수린,‍234) ‍

§ 앵무새의 빈자리에 대한 상실감

§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 “너무 무서운 일“ - 마음 ; 모든 경험, 아픈 기억과 상처 포함

- 상실과 이별, 실수한 경험, 실패와 과오 등

앵무새의 부재

" 그녀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노트를 펼쳐보았다. 갈피에 끼여 있던 아주 작은

연노란빛 솜털 하나가 그녀의 무릎 위로 떨어져내렸다."

" 그녀는 식탁에 앉아 앵무새, 라고 써봤다. 앵무새가 갔다. 라고 쓰려다

가버렸다.고 썼다.는 문장을 보자 너무 고통스러워 그녀는 눈을 감아야

했다.“(235~236).

상실과 이별의 수용

§ “앵무새가 가버렸다“ - 홀로 남은 자신,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이별의 고통, 망막함과 절망§ “어두운 강물 속처럼 그녀는 길을 찾기 위해 물풀을 헤치는 사람처럼눈을감은 채 기억들 사이를 헤쳐 지나갔다.”

- 상실과 이별 : 수용과 인정 -> 삶의 온기(환한 날들)

종료되지 않은 일들, 남겨진 감정

§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후

-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저 흐느끼거나 또는 분절된 언어를쏟아낸다.

§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작되는 이야기하기

- 물론 그 이야기가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다.

- 하지만 어쨌든 처음-중간-끝을 포함하는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 - 글쓰기 - 문학

§ 우리는 우리가 겪은 일을 이해하게 된다. 자기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 경험되어진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끼치게 될지,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늠하게 된다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영혼의 가장 맛있는 부분

- 다니카와 슌타로

하느님이 땅과 물과 햇빛을 주고

땅과 물과 햇빛이 사과나무를 주고

사과나무가 빨갛게 익은 열매를 주고

그 사과를 당신이 나에게 주었다. 부드러운 두 손으로 감싸서

마치 세계의 기원 같은

아침 햇살과 함께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당신은 나에게 오늘을 주고

잃어지지 않을 시간을 주고

사과를 가꾼 사람들의 웃음과 노래를 주었다. 어쩌면 슬픔까지도

우리 위에 펼쳐진 푸른 하늘에 숨은

그 정처 없는 것을 거슬러서

당신은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영혼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나에게 주었다.

* 플랫 다이어리
* 대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자주 부딪치는 조별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어날 법한 갈등과 오해의 문제
* 타인에 대한 나의 평가가 실제로는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거나 오해 등에서 기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 공동 작업을 할 때 원만한 과정과 최선의 결과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 시금치 소테
* 자살시도까지 했음에도 습관적으로 남의 눈치를 봄 -> 한국사회의 눈치보는 사회
* 죽으려는 사람에게 의미없는 프레젠 테이션
* 자살율이 줄어든단 통계를 직설적으로 보여줌
* 사람의 통계를 부품보듯 하는 옵션이란 단어
* "무엇이 인간적인지는 결국 자신이 정의 내리는 것 아닐까요"
* 죽을 자유도 주지 않는 감시자 -> 인권에 반하는 시스템 -> 썩어 가는 것으로 부터의 인권을 보호
* 우리라는 단어도 전략적
*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기억들
* 현 정책을 까는걸까 옹호하는걸까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보호사로서의 정인의 임무는 '끼어들기'라고 했다. 물론 보호사 교육 커리큘럼에 정식으로명시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정인은 재활, 지지, 관찰, 보호 같은 항목들에 '방해'도 추가하고싶다고 했다. 생존자가 우울이라는 깊은 우물에 빠져 혼자 가라앉지 않도록 끼어드는 방해꾼이되는 것이 제 목표라며, "어때요? 제가 조금은 방해가 되고 있나요?"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디자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문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푼크툼(개구출 소방관 + 전쟁중 아이 구출 군인)

* 스투디움
  + 정답을 맞춰야 하는 우리나라 교육상 이 감상법으로 우리는 경험했다.(정답을 찾아야 함)
  + 보편적 감동(사회적으로 말하는 윤리의식, 선의 의지, 보편적인 주제를 찾아내 감동을 받는다)
  + 윤리와 교양에 근거 (교양 : 소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SF배경 등)
* 푼크툼 (스투디움과 반대의)
  + 작품 안에서 나만이 꽃히는 단어, 문장, 장면이 있다.
  + 내가 읽었을 때 이 파트에서 나를 찌르는 무언가가 있다.
  + 왜그랬을까를 찾는 능력을 이 수업에서가르치는게 목표다.
* 자오선을 지나갈 때

문득 내가 모르는 얼굴이 나로 살고 있다는 생각

도 했다. 하지만 고향 친구들이 '지금 뭐 하나고 물었을 때 
'학원 나간다고 하면 왠지 부끄러울 것 같았다. 동네마다 보 

학과에 의해, 성적에 의해, 돈에 의해 사람을 구분하고

자신이 없는지 무시받지 않으려고 거드럭, 강의 폭력으로 행동하는 원장

는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네 
가 대학에 떨어진 이유는 올해 카시오페이아좌에 있는 7789베 
타별이 자오선을 지나갈 때 반짝거렸기 때문이란다'라고 말해 

IMF와 같은 천재지변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

사립대는 안된다 재수도 안된다.

패배자

작은 서울에 수많은 사람들을 밀어넣은 구조

작은 칸막이 책상 네개에 밀어넣고 부품처럼 옆사람 깨지 않게

아니 어떻게 레드 제플린이 싫을 수 있어? = 타인의 이해를 거부, 보편적인 것 외에는 죄악

최단기 최다 마감 =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기록을 믿겠다.

강의 내용은 좋았지만, 친구들에게는 반대로 말해주라 = 다른사람을 미는게 더 효과적(일부로 말해줄 필요도 없다.)

우연히 만난 동창과 닭갈비를 먹는 것을 이유로 어제 죽은 이에게 죄송하게 될까 = 극단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사회 외의 것은 중요해지지 않는

나는 성격도 원만했고 나름대로 창의적인 인간이라 생각해 왔었다. 그래서 처음 서류 심사에 떨어졌을때‘원래 몇 번씩은 다들 떨어진다잖아?’ 생각했다. 그 다음 떨어졌을 때 ‘혹시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싶어 운전면허를 땄다. 또 한번 떨어졌을 땐 ‘혹시 내 인상이 안 좋나?’해서 사진을 다시 찍었다. 열번넘게 낙방하자, 나는 혹시 내 전공이 국문학이기 때문이 아닐까 고민했다. 그러자 영문학에 다니는 친구가말했다. “영문과도 마찬가지야. 요새 영어는 아무나 하거든.” 철학과에 다니는 친구는 말했다. “그래도네가 나보단 낫지 않니?”그 말을 똑같이 법학과에 다니는 친구에게 하자 그는 꽁초를 힘껏 빨며 웅얼거렸다. “그것도 옛날 얘기지. 요샌 고시도 잘사는 집 애들이 잘 붙어. 장거리 경주라 누가 뒤를 받쳐줘야 하거든.” 한 스무 번쯤 떨어졌을 땐 ‘내가 너무 눈이 높은 것은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작지만 건실한 회사에 부지런히 원서를 넣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하여 서른번 째 낙방을 했을 즈음, 나는 머리통을 감싸 안고 중얼거렸다. “정말 나는 괴물이 아닐까?”

• 사회가 정해 놓은 기준선에 미달한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 •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자가 스스로를 낙오자 혹은 잉여적 존재로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

-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부 2학년 때부터 해왔던 학원 강사직을 취업을 위해그만둔 상태였던 나는, 또다시 학원 강사직 면접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서너 군데 면접을 본 나는 전철을 타고 “서울 북쪽 어딘가에”(p.117)있는 “내방”으로 귀가하는 중이다. 그때 객차 안에서 ‘노량진역’을 알리는 안내방송을들으며 나는 불현듯 과거를 회상한다.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 이터널 선샤인

갑자기 떙땡이 치고 싶어서 나옴 기분파도 아닌데

전여친이 있 는 듯. 내가 사랑하게 되는 여자는 내게 관심이 없을까?

기억을 뇌구조 엑스레이로 살펴봄 굉장히 기계적으로 기억을 삭제함

남주 : 상대가 너무 자유분방해서 불안

여주 : 상대가 자신을 너무 의심해서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타이포그래피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사랑의 불완전함에 대한 수용

나와 타인의 결핍을 인정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

자기 만족적 사랑에서 벗어나 사랑의 속성에 대한 이해

이전에는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시 했지만

-> 우리나라에선 근대에서 사랑으로 개인주의의 탄생이 발발했다.

1910년대의 사랑에 대한 관념.

사랑 = 개인주의의 탄생

* 열정적 사랑에 대한 매혹과 두려움
  + 충족을 넘어선 욕망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 로맨스의 작품이 사랑의 결합과 완성을 추구하다보니

사랑에 대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으니 주의

* 로맨스에 대한 환상보다, 사랑의 현실
  + 젊은 세대를 시작으로 사랑보다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호하기도 함. ex) 라라랜드
  + 사랑만 있어도 살 수 없다, 사랑도 하나의 스펙으로 봄.
  + 사랑하는 상대 = 자기인정 욕구를 위한 대상이 되기도 함.

1. 사랑의 불완전함에 대한 수용
2. 나와 타인의 결핍을 인정
   * 내 결핍과 상대의 결핍을 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3.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자기 만족적 사랑에서 벗어나 사랑의 속성에 대한 이해

* 사랑에 대한 추천
* 드라마 RUN ON, 소설<가슴 뛰는 소설>

텍스트, 친필, 폰트, 종이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텍스트, 친필,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